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음 12월 10일) 제22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청년농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전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실습농장 ICT기자재실증단지 등 인프라 구축 등 농업 체질 개선

전북도는 도시의 청년층을 유입시켜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실습농장(교육형 1.2ha, 경영형 2.0ha)' 및 'ICT기자재실증단지(실증단지 2.3ha, 지원센터 0.5ha)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촌에 청년 농어업인이 조기 정착하도록 네트워킹 활동을 신규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농업농촌 체질개선을 추진한다.

신규로 지원한다. 올해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80~100만원)의 지원인원 415명으로 확대, 신규 창업자가 영농 정착지원금(월 100만원 미만, 최장 3년 지원) 지원인원 18명으로 확대하여 청년 농어업인이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이가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보육 및 청년 한식장사 컨설턴트 양성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영농창업기회가 되도록 추진한다. 입문과정(청년창업기본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작물재배 현장실습교육 6개월), 경영형실습(작물재배 경영실습교육 12개월)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올해 5~6월 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한식장사와 컨설턴트를 선발, 한식맛춤교육, 청년 취,창업, 식품기업 연구 생산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2월까지 총 7명(전문강사 3, 연구원 3, 기타 1)을 선발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물품목장은 "도시의 청년층을 유입시켜 농어촌에 생동하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머물며 농어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전북도가 청년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미세먼지로 뿌연 전주천 일대

전북 전주미세먼지 농도가 127 $\mu\text{g}/\text{m}^3$ 로 나쁨 수치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2 $\mu\text{g}/\text{m}^3$ 로 매우 나쁨 수치로 최악의 날씨가 지속된 14일 전주 한옥마을 전주천 일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지나고 있다.

전북도, 올 설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원

중기 연간매출액 50% 범위 내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 채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

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내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북도가 지원한다. 또한,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

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금현 도 기업지원과장은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2019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지역주재기자	익산 0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9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팔복동 공단 환경문제 대응

전주시, 만성지구 주민대표 등과 합동으로

전주시가 만성지구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전문가와 함께 팔복동 공단지역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는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만성지구 주민대표와 시민연합,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공단지역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2019년도 제1차 민·관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시민대표인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대표와 김양원 전주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만성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여의동 용정마을 주민,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관계자, 전북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환경분야 교수, 시간부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팔복동 공단지역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 규제사항과 지도·점검 방안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진행, 의견조율 및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고, 시민연합과

환경단체 등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대표들과의 의견 중재에 나섰다. 또, 주민대표는 주민간 소통을 통해 집약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거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환경전문가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과 대가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환경·건축·폐기물관리·도시계획시설·시민동향 등 담당분야별 대응방안을 검토해 제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소송 원인 분석 등 승소를 위한 대안 검토와 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대응단을 실무자 중심으로 별도 운영하고, 필요시 민·관 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곳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개편시 산단 대기관리팀을 신설해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이날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전주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과 효과적인 행정규제사항을 마련하고, 팔복동 고형폐기물 발전 시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2019 평화통일 기원 신년하례회

- 일시 - 1월 18일(금) 오후 6시(식전공연 5시 30분)
- 장소 - 전주 르윈호텔 1층 백제홀
- 주최 - 전주매일신문,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 JJC지방자치TV 전북본부
- 주관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
- 내용 - 도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신년인사
- 연락처 - 063-223-6138, 236-1221

